

Ⅲ. 엄마의 TO DO LIST (2)

1. 6월 모의평가 오답 분석과 대비 전략

[국어]

문항	출제 항목	정답	난이도	배점	정답률	오답률
5	5. 말하기 내용 추론	4	중상	3	58%	42%
14	14. 문장의 짜임새 파악	2	상	3	31%	69%
20	2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2	중상	2	58%	42%
23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5	최상	3	27%	73%
31	31.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3	상	3	44%	56%
32	32. 세부 내용 추론	2	상	2	39%	61%
33	33.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5	중상	2	50%	50%

1. 기본적 형식

2017학년도 수능 국어의 기본적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화법-작문-문법-문학-독서 영역을 바탕으로 화법-작문-문법 15문항, 독서(비문학) 15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된 기본적 체계가 유지되었다.

2. 세부적 변화 내용

2017학년도 모의평가와 수능 즉, 206년 6월과 9월에 치러진 평가원 모의평가와 11월에 치러진 수능과 마찬가지로 화법-작문-문법-문학-독서(비문학)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항과 지문의 구성은 조금씩 변화를 주거나 제재를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화법-작문-문법 영역

	화법	작문				
2017학년도 수능	1. 지문을 2개로 제시하여 총 5개의 문항을 제시함. 2. 지문 1에 2개의 문항으로 제시함. 3. 지문 2에 3개의 문항으로 제시함.	1. 지문을 2개로 제시하여 총 5개의 문항을 제시함. 2. 지문 1에 3개의 문항으로 제시함. 3. 지문 2에 2개의 문항으로 제시함.				
2018학년도 6월	화법 단독 지문은 1개로 구성하고 3개의 문항으로 제시함.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화법과 작문의 결합</th> </tr> </thead> <tbody> <tr> <td>화법과 작문을 복합 지문으로 구성하고 4개의 문항으로 제시함</td> <td>작문 단독 지문은 1개로 구성하고 3개의 문항으로 제시함.</td> </tr> </tbody> </table>	화법과 작문의 결합		화법과 작문을 복합 지문으로 구성하고 4개의 문항으로 제시함	작문 단독 지문은 1개로 구성하고 3개의 문항으로 제시함.
화법과 작문의 결합						
화법과 작문을 복합 지문으로 구성하고 4개의 문항으로 제시함	작문 단독 지문은 1개로 구성하고 3개의 문항으로 제시함.					

✓ 독서(비문학)과 문학 영역

	독서	문학
2017학년도 수능	1. 인문 제재: 서양 철학 2. 과학 제재: 섬유소와 비섬유소 3. 사회 제재: 보험 계약	1. '현대시+희곡'의 복합 지문 2. '소설 해석+고전소설+현대소설'의 복합 지문 3. 고전시가 단독 지문
2018학년도 6월	1. 인문 제재: 동양 철학 2. 기술 제재: DNA 스푸핑 3. 사회 제재: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1. '현대시 해석+현대시 I+현대시 II'의 복합 지문 2. 현대소설 단독 지문 3. 고전소설 단독 지문 4. '고전시가+수필'의 복합 지문

3. 신유형 문항

“화법-작문 결합 지문”이 신유형 지문 구성으로 볼 수 있으며 화법과 작문의 지문의 개수가 2017학년도 수능의 4개에서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는 3개로 줄어들게 되어 분량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으나 복합의 형태로 제시되어 지문의 내용이 길어짐으로서 문항을 푸는 과정의 부담이 커졌다. 그러나 지문 자체의 난도가 높지 않아 수험생들의 득점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4. 고난도 문항

2017학년도 수능과 이번 6월 모의평가를 통해 나타난 고난도 문항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 1) 지문과의 연결성이 높다. 문항이 출제된 지문의 내용이 생소하면서도 지문을 구성하는 정보량이 매우 많다.
- 2) 문항의 선택지 ①~⑤가 단순 확인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내용을 결합한 문장이다.
- 3) 문항의 <보기>와 비교해 가면서 해답을 찾는 과정에 ‘직접적’ 문장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나타난 특성의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경우이다.

5. 6월 모평 이후 상위권 학생의 학습 전략

✔ 화법-작문-문법 영역

- 1)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문항을 풀 수 있는 경우는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변별력을 드러내는 문법 문항은 문법 지식을 묻는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문법의 기본 사항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
- 2) 고전 문법은 고전 문법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고전 문법에 대한 암기는 필요하지 않고 주어지는 정보들을 꼼꼼하게 읽고 이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에 집중하도록 한다.

✔ 화법-작문에 대한 읽기 전략

상위권 학생이 문항에서 틀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지문을 대충 읽기 때문이다.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이루어졌기에 꼼꼼히 읽지 않아 내용 기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 2) 문항에서 선택지 비교를 대충하려고 한다. 머릿속의 개괄적 기억을 통해서 대충 답을 추리하려고 한다. 분명히 지문으로 돌아가 선택지와 일일이 비교하면서 답을 찾아야 한다.

✔ 독서(비문학)에 대한 전략

복잡한 내용으로 구성된 지문을 읽는 전략이 없다. 그냥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생소한 문장들이, 생소하므로 어렵게 느껴지는 문장들이 4개 이상 연결되기 시작하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한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 1) 정보를 분류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독해의 과정에서 적극적 표시와 필기도 필요하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독해의 기본이고 이러한 전략이 있어야 읽기의 과정에서 몰랐던 것을 이해하게 된다. 만약 끝까지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문장을 표시한 후, 이를 문항의 선택지와 비교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정보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출제자는 문장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문장이라는 정보의 유무 그 자체에 대한 것을 문항으로 구성하여 그 문장 그대로를 선택지 ①~⑤에 진술하는 경우도 많다.

- 2) 문장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문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개별 문장의 이해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장만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문장과와의 연결 그리고 그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단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독해를 한다. 즉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 즉, 글의 내용을 크게 보면서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 문단의 의미에서 문장의 성격을 확인해 간다.
- 3) <보기>에 제시된 정보와 지문의 정보를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읽어야 한다. 자신의 분석 능력만으로 생소한 과학-기술-경제 지문에 대한 추리적 판단이나 비판적 판단을 하려는 학생들이 있다. 대부분 실패한다. 수능 국어의 핵심은 추리와 비판이 아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그 정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문학에 대한 전략

- 1) 상위권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EBS 교재에 실린 문학 작품들은 주제 의식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에 출제되는 문학 작품의 문항들은 EBS 교재에 제시된 주제 의식에서 벗어나는 문항을 출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본적인 주제 의식은 기억하고 가면 문항 해결에서 오류를 저지르는 과정을 피할 수 있다.
- 2) EBS 교재의 문항에 대해서는 문항 풀이가 필요하지는 않다. 문항은 새롭게 구성되어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푸는 것도 추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영역의 문항 풀이의 핵심은 기출 문항의 해결이다.
- 3) 문항의 풀이는 수능과 모의평가의 기출 문항에 제시된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문항에 주목하지 말고 수능과 모의평가의 기출 문항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의 분석 논리와 문항 해결의 논리를 학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이 필수적이다.

[수학 나]

문항	출제 항목	정답	난이도	배점	정답률	오답률
19	이항정리에 관련된 추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1	중상	4	56%	44%
20	접선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구할 수 있는가?	3	중상	4	59%	41%
21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가?	1	최상	4	26%	74%
27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한 함수를 구할 수 있는가?	6	상	4	45%	55%
28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는가?	43	상	4	43%	57%
29	귀납적으로 주어진 수열의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할 수 있는가?	13	상	4	33%	67%
30	미분법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함수의 값을 구할 수 있는가?	243	최상	4	6%	94%

1. 2017 수능 출제 경향과 6월 모평 비교

수학 가형과 나형 모두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킬러문항으로 미적분 문제가 출제되었고, 최근 유행하는 형태인 함수의 결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수학 나형의 경우는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21번 유형에 개수세기가 출제되어 개수세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킬러문항의 경우 빠른 풀이가 존재하기보다는 논리적 사고를 통해 단계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다.